
인권 지킴이

이 민 준

“야, 박성규 너는 베트남 놈이 왜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야? 너희 나라로 가 인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태권도라도 잘 하던지.”

태권도 학원에서 나오는데 준우와 그 친구들이 성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다문화가정으로 엄마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규는 얼굴이 좀 검기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김준우. 너는 왜 성규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러냐? 성규 아빠가 분명 한국 사람인데…….”

내가 참견을 하자, 준우는 성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니 성규도 베트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끔씩 그렇게 인권을 무시당하는 성규를 돕고 있지만 덩치가 큰 준우가 나에게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성규야, 준우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너는 분명 한국 사람이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도 떳떳하게 준우한테 덤벼.”

힘 있는 애들이 성규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그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런, 저런, 저걸 어째.”

텔레비전을 보던 엄마가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다가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 흑인인 미국 사람이 길거리에서 동양인을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동양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저 흑인은 왜 동양인을 무조건 때린대요?”

내가 흥분하여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하여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이지.”

“아니 자신들도 피부색이 검어 백인들한테 수백 년간 멸시를 당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도 동양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텔레비전에서 동양인의 인권을 무시한 그들의 폭력적 행동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종교, 빈부, 남녀노소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때 백인의 노예로 생활했

던 흑인이 이제는 황인종을 무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피부색이 다른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이 사는 곳에 동양인이 섞여 산다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성규를 괴롭히는 친구들한테도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주어 깨닫게 해야겠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친구들한테 인권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으로 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또 성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이 검둥아. 태권도 품새 연습 좀 많이 했냐?”

그러면서 준우와 그 친구들은 몸집이 작은 성규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았습니다. 순간 내가 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김준우. 왜 성규가 검둥이냐? 너 자꾸 성규의 인권을 무시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

그러자 준우가 이번에는 나한테 덤볐습니다. 순간 나는 기마자세를 하고 성규를 꼬나보며 말했습니다.

“한판 뜨려면 덤벼.”

그러자 준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때 내가 준우한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이 섞여 살고 있다. 백인도 흑인도 그리고 우리 아시아인도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하여 서로 편을 갈라 헐뜯고, 무시하고, 싸운다면 평화가 유지되겠냐? 서양에 사는 백인이 준우 너한테 피부가 누렇다고 무시한다면 좋겠냐?”

나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인권이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준우 네가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성규를 괴롭혀도 좋아.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성규를 괴롭히지 마.”

우리 태권도 학원에서 내가 제일 먼저 품띠를 뺏기에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나의 뺏장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준우는 더 이상 성규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